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16, 1부

열왕기상 21-22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열왕기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장과 2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즐겁게 우리 각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우리의 작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원수가 우리를 압박하고 싶어하는 우울증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것처럼, 당신이 다스리시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갖게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 연구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라는 말을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학자들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 땅이 대규모로 정복되었다는 증거는 실제로 없다고 종종 말합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성경이 묘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의 통제 구조가 무너지는 일련의 게릴라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무는 점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거의 절반, 사실 여호수아서의 절반은 땅의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실제로 정복에 관한 책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고 그 땅을 분배받는 일입니다. 중세 유럽에는 왕이 충성스러운 귀족에게 충성심과 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대가로 토지의 일부를 주는 봉건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 귀족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땅을 부족 밖의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이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다른 부족 구성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클랜의 다른 구성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부족 외부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이야기가 왜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갈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쓰러진 다음 회복되고, 그의 후계자 곧 엘리야의 사역을 실제로 수행할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에 이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예언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적 사역이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 소개부터 열왕기하 13장 엘리사의 죽음까지. 하나의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셨는가? 열왕기 연구에서 우리는 이것이 이야기의 모든 사건을 다루는 완전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매우 선택적입니다. 요점을 밝히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 시점에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냐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땅입니까? 여호와의 땅이냐?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까?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이곳이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궁전 바로 옆에 있는 이 포도원을 봅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계곡의 남쪽 가장자리에 있으며, 그곳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동쪽과 서쪽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들의 여름궁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계곡을 통과하는 공기가 더 많아 여름의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더 쾌적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포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실 정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녁, 서늘한 저녁에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 나봇. 내가 말해주지. 내가 당신의 이 포도원을 위해 돈을 주겠습니다.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면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주세요.

나봇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궁전, 이 포도원을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족 출신이 아닙니다.

이곳은 내가 선택한 대로 다룰 수 있는 내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호와와의 땅이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나는 Ahab을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전형적인 이중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이세벨처럼 바알에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은 여호와와의 진영에 있고 한 발은 바알의 진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이 말하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아합 왕,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많은 현금을 받고 싶거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얻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 팔아요. 아합은 무엇을 합니까? 그가 말하길, 친구, 내가 왕이고, 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됐다. 아니,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빠져요.

우리는 선지자가 벤하닷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를 비난했을 때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부루통해졌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옛 야훼 신앙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고 많은 교회 회원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반은 야훼를 위해 절반은 세상을 위해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짜증나. 불행. 어느 쪽이든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행복할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문화 사이의 약간의 변화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애정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체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문화에 오면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생각, 느낌, 의지가 모두 하나의 복합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15장에서 아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마음이 온전하고 온전하며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위해 연합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그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화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족을 찾는 길이다. 그것이 성취감을 찾는 길이다.

그리고 아합은 두 마음을 품었지만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녀는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뭇이 그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무슨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뭇, 내가 여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는 큰 군대가 있습니다.

좋은 싫든 나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니, 아니, 그 사람은 그보다 더 똑똑해. 그녀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좋은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책을 조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큰 축제를 불러서 나뭇을 명예의 자리에 앉히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몇 명을 놓으면 그녀는 매우 개방적입니다. 쓸모없는 동료 두 명, 살 수 있는 남자 두 명. 테이블 건너편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큰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을 비난하고, 나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비난하십시오.

그를 죽여. 그가 죽으면 보안관 세일을 하세요. 그리고 왕이 유일한 입찰자가 될 것입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인생이 힘, 사람에게 대한 힘, 그리고 당신이 권력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획득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그것이 이교의 세계이다. 그 세계에서는 권력이 절대적이고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사업은 권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이세벨과 아합의 차이점입니다. 아합은 그의 오랜 야훼교적 교육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세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힘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들어와서 "좋아, 땅을 가져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엘리야. 20절: 그래서 당신은 나의 원수인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20절에는 매우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팔아서 주님의 눈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맏소사.

정말 강력한 언어입니다. 당신은 판매용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주인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하는 힘, 자신의 일을 하는 힘, 욕구를 만족시키는 힘,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될까요? 당신은 자신을 팔았어요, 에이허브.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와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 번 보고 그를 괴롭히는 자로 보는구나.

이제 그는 멸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삼킬 것입니다. 개들은 성읍에서 죽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먹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에 대해 그다지 좋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개를 좋아한다.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이지만 성경에 관한 한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독수리입니다. 개들과 독수리들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자, 아합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27세의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금식하였다. 그는 굵은 베 옷을 입고 누운 채 온유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와, 와, 정말 좋은 말이네요. 아합이라도 어느 정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다음에 일어날 일 때문에 압도적인 방식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29절에서 아합이 내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는지 보셨습니까? 그가 겸손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날에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아들의 시대에 내가 그것을 그의 집으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아니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앗수르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나뭇의 포도원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